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욕심 없이 살고자 출가를 결심한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속세와 출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편지만 남겨놓고 1주일 동안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찰에 찾아와 제 모습만 보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자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만 바라보시고 사시는데 출가를 하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 불효하는 것 같아 다시 속세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으니 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출가를 해야만 하는가, 다시 출가를 한다면 흔들림 없이 깨달음의 길을 갈 자신이 있는가, 출가는 어느 사람으로 할 것인가? 곁집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이겨내어야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Q** 1년 전 저는 어느 술집사장과 심하게 싸우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

다. 술집 사장은 어린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신경성 위염까지 생겨 계속 살만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분노

**A**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인데 참으로 대단합니다. 부모님 생각이 몹은 집으로 돌아오셨으나 마음은 사찰에 남겨두고 오신 듯할

**출가하고 싶는데 반대하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요  
출가에 대해 다시 점검하시고 곁집 깨고 나오세요**

니다. 자식으로 효도를 다하려는 마음이 가깝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효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가로 훌륭한 스님이 돼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더욱 수승한 효도입니다.

유마 거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마 거사는 재가자로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출·재가 구분 없이 본인의 의지와 수행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는 정도가 결정되는 것인데 사사로움에 흔들리면 출가뿐 아니라 매사에 성취의 길이 멀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당시 부왕이신 정반왕께서 싯달타 왕자의 출가를 반대하셨지요. 싯달타 왕자께서 홀로 궁전을 거닐면서 언제쯤 출가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내게 큰 장애가 생겼구나"하시어 아기의 이름을 라후라(장애)라고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사로움에 정이 이르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선지식들도 가족의 만류와 수행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출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결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문제도 있지만 출가해 공부(수행)하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오. 많은 어려움이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어야 올바른 수행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오셨

에 안절부절 못하다 학업도 중단했습니다. 온통 그놈 생각하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장에 복수하려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일주일 있을었습니다. 몰래 쇠파이프 들고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과 부모님께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A** 분함을 감으려고 극한의 방법을 결심하고 행동을 하려했으나, 불자답게 위기극복을 잘 하셔서 마음가짐이 돋보입니다. 불법을 따르고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마음을 제어한 것이네요.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과를 바로 이해하면 분하고 복수심에 불탄 마음 이 사라지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 중 진심은 한 생각 바꾸면 쉽게 떨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한평생 마음 다스리는 공부하는 것이 한 생각 잘못하면 삼독심이 발해 쌓은 공덕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한 생각 바뀌어 이해와 용서로서 악연을 선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뜻하신 모든 일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 군포교는 거사불교 밀거름

## 사랑법당 탐방 쌍용부대 충의호국사

군대는 거사불교를 양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포교의 장이다. 신도의 고행화 등 한국불교의 허약함을 보완할 기회가 군포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당에는 교계의 지원이 늘 부족한 상태다.

수도권에 있는 군부대는 거리라도 가까워 군포교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전방지역은 지원의 손길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전방지역을 포교하는 군포교사들은 모두가 바쁜 일정을 쪼개 자비를 들여 간식을 사들고 군법당을 찾고 있다.

파주 쌍용부대 '충의호국사'는 달랐다. 매주 10여 불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 장병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의 정성으로 법당에는 날이 갈수록 장병수가 늘어나 이제는 부대인원의 1/4인 100여 명이 매주 법당을 찾고 있다. 법당이 앉을 자리가 없어 법당 확장 불사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충의호국사의 변화가 6개월 여의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충의호국사 법당은 작년까지 폐쇄됐다가 올해 1월 새롭게 장병을 맞았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5월 2일 일요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사단 12연대 쌍용부대 충의호국사를 찾았다.

아침 일찍부터 호국사 앞에는 10여 명의 40~50대 남녀 불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중에는 부부동반도 있었다. 이들은 조계사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 '기화류강'의 회원들이다. 전조계사 교무처장 분공 스님의 지도아래 10여 명씩 조가 편성돼 번갈아가며 매주 일요일 호국사를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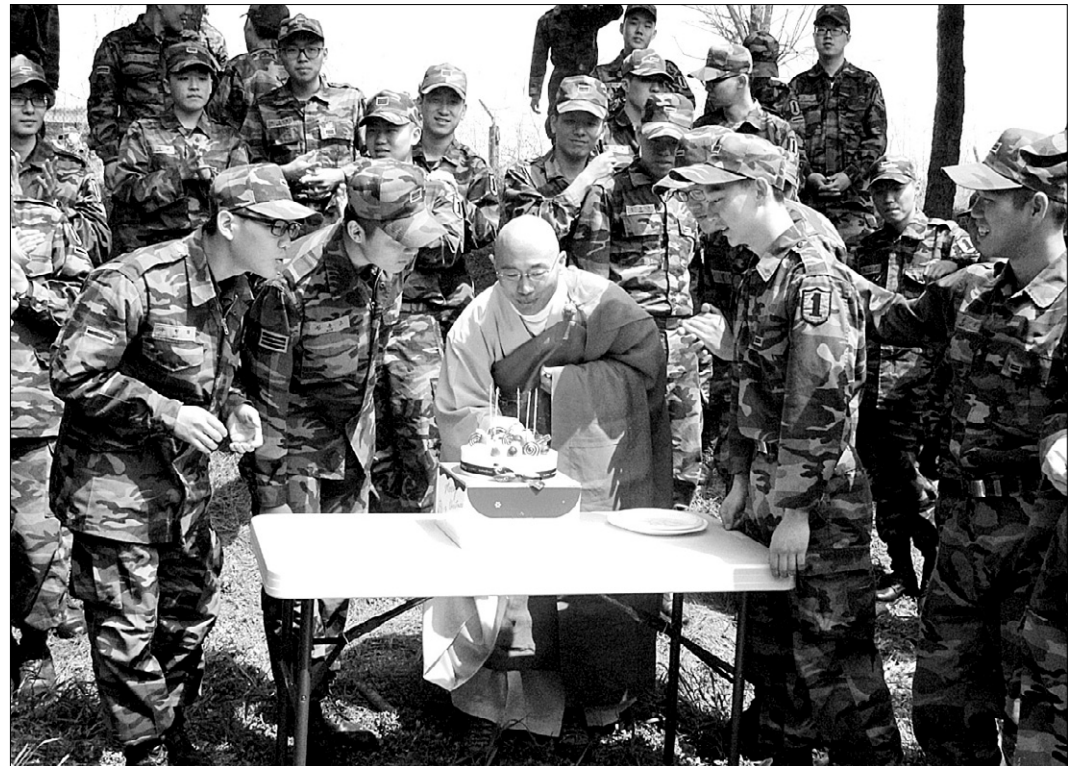
이들은 법회를 집전하는 사회자, 피아노 반주자, 동영상 촬영팀, 간식 제공팀 등 하는 일을 정확히 나누어 짧은 법회 시간에 맞게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분공 스님은 "서울 불광사 중·고생법회를 하다가 점점 줄어드는 젊은 불자수를 보면서 '미래불교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다 젊은이들이 집중돼 있는 군대가 생각났고, 군포교에 힘써야겠다고 발원하게 됐다"며 "조계사 불교대 학생들이 가르치다가 이들을 군포교 지원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스님의 발원으로 1월부터 회원들은 조를 나누어 군포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부처님도 모시게 됐다. 한 불자의 기부로 법당은 피아노까지 갖춰졌다.

이들이 마련하는 먹을거리 또한 기화류강 회원의 자랑이다. 회원들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고자 부침개, 잡채 등의 간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장병들에게 공양하고 있다. 이날의 메뉴는 호떡이었다.

'기화류강' 회원들은 호국사 앞마당에 간이테이블을 펼치고 휴대용 가스렌지위에 프라이팬을 놓은 뒤 식용유를 붓더니 미리 준비해온 반죽에 후식량을 넣고 둥글게



분공 스님과 5월에 태어난 쌍용부대 장병들이 생일축하케익의 촛불을 끄고 있다.

## 매주 '기화류강' 회원들이 사회자 등 맡아 법회 진행 생일축하·가족에 영상메일 띄우기 다양한 서비스

말아 올려놓았다.

아외에서는 호떡 만들기가 한창일 때, 하나 둘씩 장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법당에 빼곡하게 자리가 차자, 정진경 거사가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며 찬불가를 가르쳤다.

이어서 분공 스님의 법석이 펼쳐졌다. 스님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네 명의 부인'을 이야기 해주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법회가 끝나고 장병들은 야외로 나와 기화류강 회원들이 준비한 호떡을 맛있게 먹었다. 회원들과 분공 스님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매월 그달에 태어난 장병들을 위해 케익을 놓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가족에게 안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장병들에게는 동영상을 찍어 이메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매주 출석 체크를 해 3주 연속 출석한 장병들에게는 영주를 나눠준다. 제대하는 병장들의 이메일 주소는 따로 관리한다. 한 마디로 사후관리(에터서비스)가 철저하다.

장병들의 반응이 꽤 좋다. 벌써 3주 이상 출석해 영주를 두 개나 받은 이도 보였고, 간식을 먹다 말고 동영상을 영을 담당하는 불자에게 가족에게 영상메일을 띄우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한다.

우회덕 병장(22)은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법당에 와서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져 좋다. 매주 다양한 간식거

리도 주니 법당이 커지면 더 많은 장병들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일요일 오전이든 낯익은 사이에 지나간 느낌이었다. 기화류강 회원들이 알아서 척척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도 전법과 포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호·연영선 부부는 "조계가 군복무 중인데 군법당을 다니다. 전에는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깐 알아들었다. 스편지에 틀어 스며들듯 포교도 그렇게 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분공 스님은 서원이 하나 있다. 충의호국사를 확장시켜 야외에서 장병들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해 법회시간을 오래 가져 불교를 더 많이 자세히 알리는 것이다. 현재의 호국사는 규모가 작아보니 장병들은 뻣뻣하게 들어앉아 반배도 못하고 법회에 참석해 집중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분공 스님은 "이곳에서 불교를 접하는 장병들 중 상당수가 불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제대한다. 총무원과 포교원에서는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 생각해 군포교를 소홀히 하지만 젊은 장병들을 잘 관리하면 이들이 미래 거사불교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군포교에는 너와 내가 없다. 종단이 함께 모여 군포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안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주) 현대에너지텍 2010년 최신행

**농협농자 천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농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1평~20평 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 0502-228-1510  
직영점 011-673-2623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드립니다. (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 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뇌졸중, 심장병(부인화병), 우울증,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 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주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총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중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